

인류세,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
고 현 정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인류세의 “되기” 예술교육
	III. 지속가능성을 향한 예술교육
	IV. 결론
	참고문헌

* 이 논문은 2023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연구원

논문투고일 : 2023.08.20

논문심사일 : 2023.09.07

게재확정일 : 2023.09.12

Anthropocene, sustainability of arts education

Go, Hyeon-jeong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Over the past century, human abilities with complex cognition and creative ideas have led us to a world of unpredictable change with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leading to the origin of innovation that transforms the way we experience life on earth with human-centered values. Our society, culture, economy, and ecological system have a structure that cannot be separated due to complicated interconnection. Based on the theory that ‘environmental problems are not just scientific but behavioral and cultural’, this study emphasises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changing perception through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ecological system and emphasises the value of preserving ethical integrity and beauty in arts education.

The criticism in education of neoliberalism, which emphasises economic elitism, is that we must recognise the posthuman and nonhuman-centered need while we engage in science. Therefore, a new form of arts education is necessary to rethink what constitutes appropriate knowledge for the contemporary human prosperity of uncertainty. Arts education requires to consider the ontological meaning of the Anthropocene by understanding human ethics and responsibility through changes in social and cultural values, not science, and understanding relationships and coexistence rather than human-centered on human behavior. Therefore, this study sees the Anthropocene as a human problem and examines it as follows with the aim of reconstructing the position and the meaning of sustainability of arts education to expand awareness of human ethical responsibility implied in the economy and social system. First, through Foucault's concept of governmentality, the ontological meaning of the neoliberal system Anthropocene is examined, and the location of arts education is rearranged and restructured into an expanded meaning. Second, it depicts the role of arts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sustainability in the era of uncertainty.

<key words> arts education, Anthropocene, posthumanism, sustainability, neoliberalism,

<주요어> 예술교육, 인류세, 포스트휴머니즘, 지속가능성, 신자유주의

복잡한 인지와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간의 능력은 지난 세기 동안 인간 중심 가치관으로 지구상 삶의 경험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의 기원을 이끌며 전례 없는 경제적 성장과 번영으로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세계로 이끌었다. 오랫동안 인간이 영향력을 행사한 지구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교육은 환경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생태위기와 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강조하였지만 대부분 전통적인 과학기반 접근 방식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예술교육을 통해 감정적이며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환경교육을 제공해야 한다”(Inwood, H., 2008:62)고 제안하기 때문에 이 시대 예술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우리의 사회·문화·경제·생태계는 복잡하게 얽힌 상호연결의 관계로 분리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는 주로 과학·기술적이기도 하지만 행동·문화적”(Bazerman, M. & Hoffman, A., 1999:40)이라는 논리를 토대로 인간과 여러 관계에서 생태 중심적 관점을 통해 인류의 책임을 인정하고 윤리적 온전성과 아름다움의 보존 가치를 강조하는 예술교육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학기술은 인간이 만들어어나가는 것으로 환경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은 인간이 내재한 사회의 가치관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사회적 가치관은 우리가 거주하는 위치를 어떻게 보는지를 정의하기 때문에 예술교육이 인류세 지구와 인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 엘리트주의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육 분야에서의 비판은 우리가 과학에 관여하는 동안 포스트휴먼적 관점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의 동시대 인류번영을 위해 무엇이 적절한 지식을 구성하는지 다시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교육이 필요하다. 인류세를 극복할 접근이 과학이 아닌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간의 윤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인간 중심이 아닌 관계와 공존이라는 관점의 예술교육 토대를 위해 인류세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의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류세를 인간의 문제로 보고 모든 것이 경제와 사회 제도에 함축되어있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확장을 위해 지속가능성 예술교육의 위치와 의미의 재구조화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첫째,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 인류세의 존재론적

미를 고찰하여 예술교육 위치를 재배치하고 확장된 의미로 그 기능을 재구조화한다. 둘째, 불확실성의 시대에 예술교육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고찰한다.

II 인류세의 “되기” 예술교육

인류세는 2002년 화학자 Crutzen, P.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는 현재 지구가 공식적으로 홀로세의 시대이지만, 인간의 행동이 지구에 자연적인 현상 이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결정적인 특징이 인간의 영향인 시대로 들어섰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한 세기 이상 연구하여 다양한 용어가 제안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지질학적 성문화된 용어와 상관없이, 생태·물리학적으로 지구에 대한 인류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영향력의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인류세의 발발 원인은 많은 학자가 논의하는데, Gowdy, J. & Krall, L.(2013)는 그 뿌리가 인류의 결정적인 진화의 시작을 알린 농업화에 있다고 주장하고, Kolbert, E.(2011:70)는 산업화 이후 “지구의 암석권, 물, 대기 및 생물권에 가속화된 인간의 영향으로 형성된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를 열었다고 한다.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지, 인구의 극적인 증가와 거대한 도시화, 인간의 편이에 맞게 자연수로의 경로 변경, 터널구축 등으로 삼림의 퇴적과 침식의 패턴을 변화시킨 인류가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인류세 시대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을 초래할 위기에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동의한다.

과학적인 의미에서 인류세는 지질학적 시기인데, Lövbrand et al.(2015:212)은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을 구성”하며, 인류의 모든 연구는 인간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인류세는 과학과 사회과학 분야를 결합한 “지구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전반”(Lövbrand et al., 2015:212)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지질학적 힘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인류세는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기로 선택하는 방법과 연관되어 과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생태적·사회적 구조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사회·경제·문화·교육학적 문제로 확장되어 임해야 한다. 인간이 만들어 낸 기술적 힘으로 지구 시스템에 변화를 주면, 거주하고 있는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현재에 살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삶의 지속가능 존재로서 인류세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인간은 지진과 허리케인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발생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인류세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의 생

태계 되기, 관계의 공존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즉, Bostrom, N.(2013:18)이 “오늘날 우리 세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문제들이다. [...] 그것들은 우리의 행동과 사회 제도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해결책을 가진 인간의 문제이다”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생태계를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책임감 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윤리와 교육 제도를 두고 있는 그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Proctor, J.는 인류세에 처한 문제의 근원에는 “자연에 대한 개념과 함께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인식”(Proctor, J., 2013:83)에 있으며, 이는 “지식 생산, 과학기술의 혁신과 문화 실천의 지배적 패러다임”(Proctor, J., 2013:83)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으로서 예술과 인문학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인류세 위기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기 위해 예술을 활용하는 것은 “과학기반 환경교육의 전통적이고 인지적인 접근법으로는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참여에 기여”(Inwood, H. & Taylor, R, 2012:70)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의 중요성과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사회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인문학과 예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 인류세 연구가 지구의 물질이 생성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생명체가 서로 상호관계되는 내재된 존재에 대해 논의하며 미래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현실론을 제시(Gowdy, J. & Krall, L., 2013; Inwood, H., 2008 참조)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물과 유기체, 그중에서 특히 인간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의 공존에 대한 분리를 문제화하기 때문에(2023, 고희정 참조)결국 인류세는 인식론과 존재론의 위기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인간의 윤리와 교육구조를 통한 문제인식의 변화로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함유한다고 볼 수 있다. 존재론적으로 인류세는 포스트 자연주의적, 포스트 사회적, 포스트 휴먼의 이론을 토대로(Lövbrand et al., 2015) 연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포스트휴머니즘의 대표적 이론가 Bridotti, R.(2013)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생물학적 삶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존재론적 주장들을 연결하여 논의한 인류세 예술교육에 집중한다.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현실을 구현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의 사회에 거주하는 인간은 지질학적 문제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인식으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인류세 예술교육은 어떻게 자신과 타인, 자신과 생태계, 자신과 기계 등과 관련하여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삶의 구조적 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 제도와 관행 전반에 걸친 경제 지배적 모델일 뿐만 아니라, 우

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며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리의 세계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고, 인간 사회는 “경제적 잉여를 생산하기 위해 사회적 규범에 의해 설계된 하나의 단위로서 기능”(Gowdy, J. & Krall, L., 2013:140)한다. 신자유주의는 “초개인주의, 초감시, 생산성의 경제적 결정, 그리고 경쟁적 기업가주의”(Foucault, M., 2008:12)의 기술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현실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조의 사회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인류세는 Bridotti, R.(2013)가 인간이 지질학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개념을 토대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다시 생각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듯이, 인류세는 현재의 지질학적 시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다.

신자유주의를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으로 이해하는 것은 발달된 기술로 인한 효율적 결과가 사회에 작용하여 시장경제 중요성이 하나의 단위로서 공동의 사회 규제 원리로 유지됨을 인식하는 것으로 권력과 지식의 관계와 함께 개인을 주체화하는 자기기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예술교육은 신자유주의 경쟁적 결정에 따른 ‘예술가가 되는’ 엘리트 교육으로 개별적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관을 불어 넣어주고 다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미적, 정서적, 경험적 지향성을 통해 푸코의 통치성의 개념과 상응하여 개인을 주체화하는 자기기술과의 관계의 이해가 확장되는 ‘예술작품 되기’의 집합적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세계 모든 것들과 관계를 가지며 소속감을 공유한다. 인류세는 상호관계로 이루어진 존재의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와 삶의 방식을 고려하므로 인간의 삶을 공존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사회·문화적 개념을 구성한다. 예술교육은 특히 무용교육은 이미 협업적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에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유와 공존의 개념 스며들기가 가능하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관계에서 동물이 되는 것, 기계가 되는 것, 지구가 되는 것의 존재론으로, 그리고 다원적인 인식론으로 사회를 구성해야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은 예술작품으로 존재하는, 예술작품 되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예술교육을 공존의 이해로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류세를 인간의 사회·문화 그리고 교육의 맥락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인식하는 예술교육은 지식의 필수적인 수행과 경쟁을 통한 사회 계층간 불평등의 신자유주의 비판에서 해방되는 사고와 행동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III / 지속가능성을 향한 예술교육

인류세는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 특히 문화와 관련된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한 생각의 변화를 요구한다. 인류세는 “폭파된 환경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과 인위적 재난의 여파로 삶에 대처하는 것”(Kirksey, S. et al., 2013:15)으로 설명되기에, 이 시대에 어떻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에게 생사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Inwood, H. & Taylor, R.(2012)가 인류세를 교육 문제로 규정하듯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간과 다른 유기체와 관련된 방식에 대한 지식을 얻는 교육을 통한 앎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경쟁의 세계에서 급격하게 발달한 동시대 과학 분야는 미래사회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지구와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하게 하고 생각의 변화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예술을 교육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Inwood, H. & Taylor, R.(2012:68)은 인류세에 의해 야기된 교육의 위기는 “학교 교육과 학습의 규범적 개념 안에서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미묘한 방식으로 사회와 세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창의적 사고 능력은 급속한 기술적 발달과 이로 인한 혼란, 불확실성의 시대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미묘한 모호성을 풀어나가는 미래사회 혁신의 선구자로서 필수적이다. 예술교육은 이러한 미묘한 방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태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이루어 내도록 도전을 북돋는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며 극적으로 고조된 환경 변화의 세계에 살고 있다. 급격하게 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교육은 상호관계의 포스트휴먼 개념을 수용하는 인류세에 지속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지속가능성은 정부와 기업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익과 이윤을 향해 움직이는 시장중심 경제 성장을 위한 용어이다. 하지만 Parr, A.(2009)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은 하나의 사고방식일 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속가능성 문화”(23)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문화가 생산되고, 보급되고, 소비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상상하고 설계”(Parr, A, 2009:25)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예술교육은 이러한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류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Inwood, H.(2008:58)에 의하면 “환경교육과 예술교육은 보존, 복원 및 지속 가능성과 같은 환경 개념과 문제에 대한 인식과 상호 작용을 발전시키는 수단”이다. 예술교육은 과학기술의 지식확장에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상호 접근 방식으로 서로의 균형을 맞추어 인류세 위기를 극복할 혁신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생태계의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Inwood, H. & Taylor, R.(2012)는 이러한 생태적 교육을 에코아트 교육이라 부르며 예술교육과 환경교육을 결합하여 창의적 접근법으로 학생들의 환경인식을 확장한다. 또 Foster, R. & Turkki, N.(2021)는 eco justice 접근법을 토대로 무용교육을 수행하며 자연에 대한 인식과 애착을 강화하기 위해 무용이 체화되고 다원적인 인식론을 바탕으로 다감각적인 학습에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생명체의 잠재력과 변화에 협력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으로서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의 대안적 비전을 제공한다.

이 두 예술교육 모두, 학습자가 예술가로서 성장을 보다는 창의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 변화를 꾀한다. 이로 보아 예술교육에서 지속가능성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적 가치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이념, 개념, 논리를 내재한 창의적 과정으로 학습자에게 거주하고, 개방되고, 내재하는 사회적·윤리적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Jenkins, W.의 “인류세는 도덕적 중에 의한 지배의 시대이기 때문에 윤리의 시대”(Jenkins, W., 2013:2)라는 주장과 Braidotti, R.의 인류세 시대 긍정의 윤리학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에 대해 생각할 대안적 방법”(2019:241)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구를 지배한 우리의 윤리적 책임을 창의적 활동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예술교육의 방향성이 안내된다. Braidotti, R.(2019)논의의 중심에는 지속가능한 변화와 미래의 희망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인간의 윤리로 보여주며 긍정적 윤리학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인류세 인간의 윤리는 동물, 남성, 백인, 생태계 등의 관계에 대해 차별화했음을 인식하는데, 인류세 예술교육은 인간 중심 인류세에서 환경과 함께 사는 조화로운 공존의 이해를 통한 실천으로 인간과 비인간과의 관계를 향한 배려와 가치를 내재한 행동을 배양하며 새로운 윤리적 틀을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현재는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초적 틀이다. 우리에게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가 살 가치가 있는 세계를 전승해줄 책임을 지닌다. 예술교육은 “삶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는 지속가능한 과정”(Verhoef, A. & Du Preez, P., 2020:152)으로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미학의 매개체인 감각적 인식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윤리를 허용한다. 특히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드는 무용은 인류세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인식하는 사고로 여러 관계가 공존하며 협력하여 생태적 위기에 대한 감각적 인식을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

할 수 있다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예술교육을 통한 윤리는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존재하고, 지속적인 생성을 허용하는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내포한다. 따라서 인류세 예술교육은 모든 형태의 삶을 인식하는 포스트휴먼 주체성을 토대로 관계의 공존을 이해하며 인간의 책임을 이행하는 지속가능성의 사회 윤리적 과정으로 재구조화된다.

IV 결론

인류세의 개념은 인간의 재인식화를 의미한다. Bridotti, R.(2019)은 인간, 기술, 생태계, 기계와의 관계의 재인식을, Haraway, D.(2016)는 생태계를 가로지르는 상호연결을 재인식하면서 인류가 처해있는 불확실성, 분열, 불협화음의 맥락에서 다양한 종의 얽힘을 논의한다. 예술교육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상응하여 우리의 윤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기술을 제작하는 인간에게 인간과 사물, 기계, 생태계 등과의 공존의 개념과 함께 그것의 가치와 윤리적 태도를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교육적 공간에서의 포스트휴머니즘의 다양한 ‘관계’와 ‘공존’(고현정, 2023 참조)의 고려를 통해 인류세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에 대응해야 함이 논의되었고, 예술교육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물,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이해하며 그 관계 사이의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우리를 문명화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수행해야 할 과제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을 고찰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진다.

첫째, 존재론적으로 인류세는 포스트휴먼의 이론을 토대로 신자유주의 체제의 생물학적 삶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논의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의 사회에 거주하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 문화가 어떻게 자신과 비인간 그리고 생태계와 관련하여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 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술교육은 인간의 이념, 개념, 논리를 창의적 활동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힘이 있다. 예술교육은 예술가가 되는 엘리트 교육으로서 개별적 과정이 이해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예술작품 되기’의 집합적 과정으로의 예술교육으로의 역할이 가능하다. 이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과 상응하여 미적, 정서적, 경험적 지향성을 통해 개인을 주체화하는 자기기술과의 관계 이해로 인류세의 존재론적 ‘되기’ 도전에 대응할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사회와 자기기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푸코의 통치성은 개인의 공동 구성 부분보다 큰 개념으로 예술, 특히 무용교육의 협업과 협력을 통해 예술작품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공존의 이해로서 사회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잠재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공존의 이해로 존재론적 ‘작품되기’ 예술교육은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의 신자유주의 비판에서 해방되는 사고와 행동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둘째, 과학기술의 급격한 성장과 고조된 환경 변화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교육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과 문제해결에 관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 이익뿐만 아니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속가능성 문화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인류세를 이해한 예술교육은 불확실성, 불협이 맥락에서 인간과 비인간, 생태계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창의적 교육을 실천하며 공존을 향한 배려와 가치를 함양한 행동을 배양하는 새로운 윤리적 틀을 제공한다. 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에게 살 가치가 있는 세계를 전승해야 할 책임을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미학의 매개체인 감각적 인식으로 공존을 실천한다. 따라서 예술교육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적 가치의 수단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거주하고, 개방되는 지속적 생성의 허용으로 관계의 공존과 인간의 책임을 이행하는 윤리를 내재하며 지속가능성의 사회 윤리적 과정으로 재구조화된다.

참고문헌

- 고현정(2023), “무용교육의 초관계짓기와 공존의 실천 구조”,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4(2)**, 5-15.
- Bazerman, M. & Hoffman, A.(1999), “Sources of environmentally destructive behavior: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1, 39-79.
- Bostrom, N.(2013), “Existential risk prevention as global priority”, *Global Policy* 4(1), 15-31.

- Braidotti, R.(2013), *The Posthuman*, Cambridge, UK:Polity Press.
- _____ (2019), *Posthuman knowledge*, 김재희, 송은주(역, 2022), **포스트휴먼 지식:비판적 포스트인문학을 위하여**, 서울 : 아카넷
- Foster, R. & Turkki, N.(2021), "Ecojustice approach to dance education", *Journal of dance education*,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5290824.2021.1906430>2023, 2023.4.12 검색.
- Foucault, M.(2008), *The birth of biopolitics: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NY:Palgrave Macmillan.
- Gowdy, J. & Krall, L.(2013), "The ultrasocial origin of Anthropocene", *Ecological Economics* 95(2013), 137–147.
- Haraway, D.(2016),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Inwood, H.(2008), "Mapping eco-art education", *Canadian Review of Art Education* 35, 57–73.
- Inwood, H. & Taylor, R.(2012), "Creative approaches to environmental learning: two perspectives on teaching environmental art educatio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1), 65–75.
- Jekins, W.(2013), *The Future of Ethics: Sustainability, Social Justice, and Religious Creativity*,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Kirkesy, S., N Shapiro and Brodine, M.(2013), "Hope in blasted landscapes", *Social Science Information* 52(2), 1–29.
- Kolbert, E.(2011), "The age of man", *National Geographic March*, 70–76.
- Lövbrand, E., Beck, S., Chilvers, J., Forsyth, T., He-drén, J., Hulme, M., Vasileiadou, E.(2015), "Who speaks for the future of the Earth? How critical social science can extend the conversation on the Anthropocen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32, 211–218.
- Parr, A.(2009), *Hijacking sustainability*, Cambridge, MA:MIT Press.
- Proctor, J. D.(2013), "Saving nature in the Anthropocene",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and Sciences* 3(1), 83–92.
- Verhoef, A. & Du Preez, P.(2020), "Higher education curriculum transformation in and of radical immanence: toward a free and create ethics", *Alternation* 31(1), 143–146.